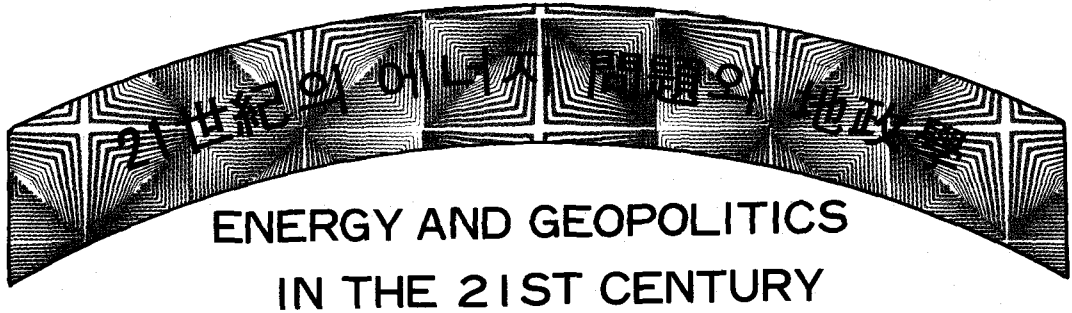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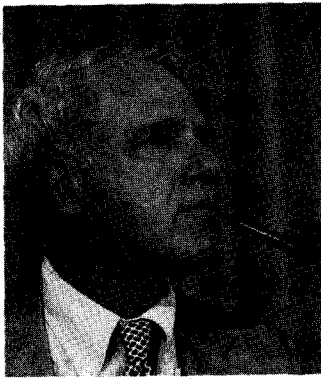
〈제14차 세계에너지會議 演說文〉



ENERGY AND GEOPOLITICS
IN THE 21ST CENTURY

James Schlesinger

(前 美國에너지省長官)



本稿는 WEC 제14차 총회시 戰略的인 에너지 問題 (Strategic Energy Issues)에 대해서 미국의 前 國防省 및 에너지省長官인 제임스 슬레진저 (James Schlesinger) 氏가 '21世紀의 에너지問題와 地政學 (Energy and Geopolitics in the 21st Century)' 이란 테마로 基調演說한 내용 全文을 翻譯 掲載한 것이다.

금번 세계에너지會議 年例모임에서 저는 21세기의 에너지問題와 地政學이라는 논제에 관한 연설을 부탁받았습니다. 에너지문제의 변화가 지정학적인 면에 미치게 될지도 모를 영향은 말할 것도 없고, 長期的인 에너지開發에 대한 예측까지도 해낼 수 있는 透視力같은 재능을 갖춘 사람에게만 주어질 것 같은 이러한 제안을 받고 本人은 약간 우쭐해지는 감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요컨대 이 문제는, “언제나 그러하듯 예측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특히 그 예측이 미래에 관한 것이라면 그 어려움이 한층 더해집니다.” 라고 말한 물리학자 닐스 보어(Nils Bohr)의 말 그 자체라 할 수 있습니다.(중중 이 평은 논리적인 면이 갖는 難解한 推論으로 인해 故 사무엘 골드윈(Samuel Goldwyn)에 그 기원을 두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두가지 관점으로 한정지음으로써 다소간이나마 쉽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저는 21세기 초반기까지로만 제 이야기를

한정지으려고 합니다. 단 25년이란 기간에도 新技術들은 끊임없이 출현하고, 따라서 미래의 상황을 豫測 혹은 판단하는 경우 이에 대한 우리들의 判斷基準도 더불어 계속 바뀌어져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런 新기술들이 등장해 商業化될 수 있는 가능성은 극히 적으며, 실제 이들이 상업화 되는데는 1세기 혹은 그 이상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50년 내지 100년 정도의 장기간에 대한 豫測을 한다면 우리가 내릴 수 있는 유일한 결론은, 豫測不可能한 요소들로 인해 미래의 모습이 상당히 변화하게 되리라는 것 뿐입니다. 하지만 향후 수십년 정도라면 지금으로서도 예측이 가능한 것들이 적지 않게 존재하리라 봅니다.

둘째로, 저는 향후 수십년 정도의 가까운 將來에 있어 에너지개발에 영향을 미치리라 예상되는 주된 힘 혹은 傾向을 설명하는 선에서 연설내용을 한정지울까 합니다. 이렇게 하면 예측을 잘못하거나 혹은 델파이의 豫言者들과 같이 지나치게 억지를

부릴 가능성을 피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물론, 한 개인이 미래의 에너지 개발에 영향을 미치게 되리라 예상되는 어떤 주된 경향의 강도나 양상을 정확히 측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더욱이 그러한 경향들이 逆轉되지 않는다는 保障도 하기 어렵습니다. 사실 그런 경향을 세세히 분석하는 행위 자체가 주된 경향에 영향을 미치는 힘으로 作用하여 더욱더 구체적인 대응 조치를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대응조치를 유발시킬지도 모를 위험성은 정보기관들의 예측에는 항상 隨伴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앞으로 詳述할 이들 경향은 그 자체가 상당한 推進力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경향들을 깨닫는다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향들을 다른 경향으로 바꿔 놓기 위해선 굳은 의지와 추진력이 수반되어야만 합니다.

17세기 영국의 政治家이자 碩學인 헬리팩스(Halifax)는 論하기를, “豫言者가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요건이란 기억력이 좋은 것”이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미래의 변화를 제대로 예측해 내려면 과거 어느 땐가 발생하여 얼마간 지속되다가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이유들로 인해 금방 사라지곤 했던 여러가지 경향들이 새로이 등장해서 미래의 推移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에너지를 安定的으로 確保하는 것이나 특정 국가들 간에 존재하는 同盟關係의 강도 등도 이러한 경향들에 포함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동맹관계의 형태는, 과거에는 석탄 혹은 석유와 관련된 분야에서 統制權 확보를 위해 軍事的紛爭事態로 비화되기도 했었으나, 2차대전 이후로 접어들면서부터는 부분적으로 曖昧模糊한 상태로 바뀌었습니다. 한때 일단의 強大國集團은 풍족한 에너지 자원과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확보하기 위해 강력한 군사력 혹은 정치적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했습니다. 그렇지만 에너지를 安定的으로 확보함으로써, 이들 강대국들이 다른 문제들에다 보다 많은 정력을 쏟던 행복했던 시절도 1973년에는 막을 내려야만 했었습니다. 그때 이후로는 民族主義가 등장하고, 종교적 教條主義도 재등장하며, 그위에 강대국들간의 凝集力마저 약화되면서 에너지를 안

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노력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저는 '70년대 石油波動으로 잠시 수그러들었다가 다시 예전과 거의 같은 樣相으로 고개를 들기 시작한 에너지 분야의 向背를 조사하는데서부터 일련의 문제점들을 풀어갈까 합니다. 그다음, 정치적인 色彩와 지정학적 구조라는 면에 나타나는 장래의 변화 모습을 언급하고자 합니다. 물론, 이때 에너지 분야에 대한 경우보다는 다소 未盡하겠지만 식별이 가능한 다른 여러 요소들이 에너지 분야에 미치는 영향도 더불어 조사할 예정입니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에너지 분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사실상 가장 뚜렷이 나타나는 경향은, OPEC 및 페르시아만 또는 아라비아 產油國에 대한 依存度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80년대 중반에 OPEC가 처했던 절망적 상황과 불안 상태 및 필사적 경제상황의 분위기는 상당히 완화되었고, 그후 꼭 3년이라는 기간안에 OPEC 產原油에 대한 의존도는 거의 25%나 증가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OPEC에 대한 의존도가 상승하는 현상은 앞으로도 꾸준히 지속되리라 예상되며, 따라서 현재(혹은 미래)에 있어서 剩餘生産分 때문에 발생하는 石油 문제는 점진적으로 줄어들게 되리라 봅니다. 概略적으로 볼 때 原油 시장에 나타나는 현상들은 自由世界の 先導者라 일컬어지는 미국이 주도해 온 것입니다. 미국에서 먼저 나타나는 여러가지 경향은 自由世界の 다른 모든 곳에서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저는 에너지 분야를 주도해 온 미합중국에 대해서만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려 합니다.

1) 미국은 또다시 급속도로 석유소비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1985년에는 하루 1500만 배럴 정도라는 비교적 적은 양을 소비하던 수준에서, 4년이 지난 지금은 다시 15% 정도가 증가하여 제2차 석유파동 이전의 絶頂期에 도달했습니다. 더욱이 국내자원이어서 그런 所要量에 대처할려는 자세는 점점 소극적으로 되고 있는 상태에서 말입니다. 그 결과 수입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최근 들어서는 수입이 더욱 가속화 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1990년대의 말에는 수입량이 약 450만 bpd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는데, 이는 5년만에 거의 2배나 증가한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산량은, 시간이 지나면 不足량이 점점 감소해야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계속 줄고 있습니다. '90년대 중반이 되면 수입량이 생산량에 버금가는 정도로 늘어날 것 같습니다.

2) 현재로서는 이러한 수입량의 增加事態를 막을 制動裝置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정치가들이 항상 떠들어대는 온갖 美辭麗句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서 수입량을 억제하였던 일은 별로 없었습니다. 또 가까운 미래에는 그런 일을 할 가능성도 거의 없어 보입니다. 요즈음에 美政府는 고집스레 “自由市場의 힘(free market forces)”에다 에너지문제를 아예 맡겨 버리는 依存政策을 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에너지 산업은, 미국 국민들이 굳게 믿고 있는 바와는 달리 (에너지산업 그 자체를 들여다 보면 그런 자신감이 그렇게 널리 퍼져 있지는 못합니다) 리카르도식으로 표현한다고 하더라도 원유생산에서 실제적인 比較優位를 점유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사실 미국의 석유산업은 상당한 高費用體制의 상태에 처해있고, 석유부족상태가 지속되면 필수록 生産費用이 증가하는 난항에 빠져있습니다.

물론 여러가지 財政的 혹은 法律的 措施를 통해 국내 석유생산량을 증가시키거나 燃料代替를 실현시켜 석유소비량 자체를 줄이는 등의 일상적인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적 조처를 택하는 방법은, 膠着狀態에 빠진 財政形便이나, 그런 교착상태를 야기시키는 주범인 정치적 긴장 상황들 때문에 선택에 많은 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법률적인 조처로서 석유소비를 줄이거나 다른 연료를 사용토록 유도하는 방법이, 환경보호라는 동기를 살린다는 입장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方案으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간추려 말씀드리자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민들이 품은 心理的 요인 때문에 增加一路의 석유수입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措施가 취해지지 못하고, 따라서 수입량은 계속하여 증가할 것으로 판

단됩니다.

3) OPEC 카르텔의 邪惡性을 비판하는 끊임없는 聲討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카르텔이 가장 약했던 꼭 그 순간이면 이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最高潮에 달했습니다만) 미국은 이제 비길데 없는 OPEC의 가장 확실한 우방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수입량을 늘임으로써(사실 이런 경우, OPEC의 생산량이 곧바로 보조를 맞추며 늘어납니다만) 어떤 다른 수단보다도 훨씬 신속하게 연료부족이라는 석유시장에서의 난제를 해결하곤 합니다. 미국은 비록 외국의 도움에 힘입어서 이기는 하지만, 적어도 1990년대 중반까지는 남아 있는 잉여재고를 대부분 처분하게 될 것이며 시장은 太平聖代를 謳歌할 것입니다.

미국은 OPEC의 힘을 재생시켜 놓는데 필요한 결정적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 OPEC 카르텔에 대해 전망컨대, 틀림없이 이들은 말보다는 행동으로써 그 세력을 과시하는 쪽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필요할 때 돕는 우방이 진정한 友邦입니다. 미국은 지금까지 그런 우방 역할을 다해 왔습니다.

4) 정도에 차이는 있으나, 미국이 처한 상태는 어느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소한 OECD (經濟協力開發機構) 諸國들의 경우 산유량이 이미 限界에 달했고, 따라서 앞으로는 계속하여 산유량이 감소할 것으로 봅니다. 또한 非OPEC 産油國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中央統制的 經濟政策과 맞물려 있어 현재의 산유량이 지속적으로 계속 유지되거나 혹은 오히려 줄어드는 경향을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세계적인 석유소비량은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는데, 아마도 제3세계 국가에 있어서는 이런 추세가 보다 뚜렷하게 나타나리라 생각됩니다.

5) 石油市場이 梗塞될수록 남아도는 석유를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줄어들고, 따라서 終局에는 産油價가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타의 나라들은 국제 석유거래량에 있어서 급속한 伸張勢를 나타내는 미국의 역할에 보다 많은 주의를 기울이게 되리라 봅니다. 그리하여 에너지를 낭비하는 습성을 지닌 미국의 버릇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도 再開되리라 봅니다. 그런 비판의 목소리는

지난 '70년대 후반에도 부정했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미국은 수입이라는 방법으로 不足分의 석유를 충당했었습니다. 앞으로도 상황은 또다시, “에너지를 낭비하는 자의 到來”라는 현상으로 나타날 것 같습니다.

6) 미국은 또한 '90년대 중반까지는, 석유수입에 필요한 재정지출로 年 1,000억 달러 이상의 외환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리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특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貿易收支의 不均衡을 고려할 때 석유수입에 필요한 이런 추가적인 過多 支拂狀態로 인해, 미국은 경제적인 면에서 뿐만 아니라 미국의 地政學的 위치가 갖는 영향력면에서도 위축되리라 여겨집니다.

석유가의 인상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 맞추는 것이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주목적은 아닙니다. 만약 OPEC가, '70년대말과 같은 그 지나쳤던 행동을 반성한다면 자체력을 보여 충분한 시간을 두며 점진적으로 석유가를 인상시킬 것이고, 그렇게만 된다면 석유가격 인상으로 인해 세계가 OPEC에 보내는 憤怒의 목소리는 줄어들 것입니다. 물론 석유거래에서 발생하는 재정적 압박의 정도를 세세히 조사하여 석유수입 국가들이 석유를 사들이는데 소요되는 支拂상의 균형 문제를 다룰려는 것이 결코 오늘 저의 목적은 아닙니다. “마음을 敦篤히 가지면 살아남고 그렇지 못하면 패배할 것”이라고만 해두겠습니다. 한가지 중요한 사실은 OPEC와 함께 정치적 不安定性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렇게 주목받지 못하는 지역인 페르시아만 연안국에 대하여 여타 국가들의 의존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外部世界가 페르시아만 원유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 가고 있음과 더불어 중동은 回生하여 끊임없이 외부의 관심을 촉발시키는 要地로 자리할 것입니다. 설령 그런 외부로부터의 관심이 없더라도 중동은 그 자체가 지닌 내부적인 갈등과 경쟁관계 때문에 지구상의 ‘뜨거운 솥’과 같은 관심지역으로 될 것입니다. 그런 沸騰하는 競爭關係, 지속적으로 점증되고 있는 이 지역에 대한 의존도, 계속되는 불안 상태 등과 더불어 중동지방은 1914년 이전의 발칸 반도에 버금가는 잠재적인 火藥庫 같은 要地로

변모하였습니다. 어떤 사소한 분쟁이라도 이 지역의 분쟁은 外部의 관심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그런데 地政學的 구조를 결정짓는 다른 외부적인 힘들, 즉 군사적 능력, 정치적 目標와 態度, 同盟關係, 국가간 경제력의 強弱 등의 면에는 향후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이들 에너지외적인 변화의 추세는 에너지 문제가 처한 상태보다는 유동적이며, 따라서 좀더 불확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경향은 약간은 미심쩍은 면이 없진 않지만 꽤나 정확히 가늠할 수 있을 정도로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정학적인 “힘의 고리”를 결정하는 주요 경향들을 살펴 보기로 합시다.

1) 아마도 地政學的이라는 면에서 볼 때 미래의 展開狀況이 어떠할 지는, 소련의 태도 변화 여하에 크게 의존할 것입니다. 잠정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고르바초프의 지도하에 있는 소련은 군사적인 면에 대한 강도를 낮추고 있습니다. 소련은 아프카니스탄 침공 이후로 외부 세계에 위협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련의 미래는 불확실한 상태인데, 군사적인 분쟁이나 강대국간의 경쟁상태, 동서간의 긴장과 같은 면을 깊이 吟味해 보면 여전히 미심쩍은 면이 적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여러분들은(혹은 누구라도), 장래의 상황이 冷戰이 극에 달했던 시기나 1980년대 초기와 같은 상황으로 되돌아 가지는 않더라도, 보다 增強된 武裝體制하에서 지금과 같이 여전히 계속적으로 유지되리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정학적인 면의 장래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처칠이 언급했듯이, 소련은 여전히 최대의 “수수께끼”로 존재할 것입니다.

2) 소련의 위협이 갖는 의미가 퇴색해감에 따라 西方世界는 점차(아마도 성급한 판단이겠지만) 경제심을 늦추게 될 것입니다. 소련의 위협 가능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변경된 상황하에서, 미국은 심한 재정적 압박 아래 있으므로 앞으로 미국의 군사력은 실질적으로 축소될 것입니다.

西方의 힘은 어떤 의미로는 1939년 혹은 1945년부터 계속 약화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아마도 가장 극적인 예라 할 수 있을 “수에즈

운하 동쪽으로부터의 영국의 철수"를 포함해 유럽의 강대했던 列強들은 식민지로부터 완전히 철수하였고, 그 뒤를 이어 2차대전 이후에는 미국이 그 엄청난 영향력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이러한 절대적인 힘도 이제 그 종말을 맞고 있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세계 무대에서 가장 막강한 힘을 소유한 국가로 존재할 것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미국 유일이라는 獨走 무대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한동안은 여전히 막강한 힘을 소유하게 되겠지만, 다른 이유들을 들지 않더라도 인구감소 때문에 서방의 세력 또한 점차 줄어들게 될 것으로 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세계인구의 30%를 점유하던 西方列國의 인구는 21세기로 접어들면 그 비율이 아마도 10% 이하로 감소될 것입니다.

3) 고도로 정밀화된 군사력의 증강은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소련의 위협이 눈에 떨 정도로 감소하고 兩極體制가 퇴조하였다는 사실은 군수물자를 공급하는 기존의 업자들이 침묵을 지키지 않을 가능성이 증가하였다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이런 연유로 인해 무기판매에 관련된 금지조항들이 약화되게 될 것입니다. 중동 지방은 畢竟 앞으로 정교한 武器體制의 저장고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외부 중재에 의한 해결 가능성은 현저히 감소되고, 군사적 및 정치적인 비용만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4) '80년대 후반에 진행되었던 페르시아만 전쟁에 미국이 쉽게 관여하였다고 하여 그 의미를 잘못 판단하여서는 안됩니다. 미국은 쿠웨이트 소속 유조선 보호하고 이란의 전투력을 감소시키기 위하여(전쟁에서의 중립적위치를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입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는 매우 특이한 것이었습니다. 이란은 그 자신의 愚昧함과 전쟁의 名分 때문에 공군력과 해군력을 상당히 消盡시켜 버렸습니다. 이 전쟁의 여파로 이란은 군사력 뿐만 아니라 경제면에서도 완전히 탈진 지경에 까지 이르렀습니다. 공군력과 해군력을 위시해 그 군사력이 보잘 것 없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전혀 과장없이 말하건대 잔여의 군사력을 武裝解除하기는 식은 죽 먹기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런데

서방의 여러 나라들은 이란이 탈진해 있는 이런 극히 드문 상황을 마치 일상적인 경우에 해당되는 양 자신들을 欺瞞하고 있는 것 처럼 보입니다.

5) 소련이 현재의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것이라는 가정하에서 보면, 소련이 중동에 군사 개입을 할 가능성은 西方世界에 비해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서방의 군사력은 서방세계끼리 군사적인 연계 체제를 유지하려는 성향을 나타내면서 서서히 축소되리라 봅니다. 동시에 소련의 在來式 軍事力은 강력한 상태로 존속할 것입니다. 만약 兵站術만 향상된다면 소련의 개입 가능성은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미국은 중동에서 遠距離에 위치하며, 소련은 近接해서 위치하기 때문에 외부의 군사력이 개입하게 된다면(그리고 실제 이런 가능성도 여전히 상당히 존재합니다만), 바로 그 외부 세력은 소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개입 시도는, 장기적인 면에서 예측해 보건데 소련에서의 산유량이 감소하기 시작하면서부터일 것입니다.

6) 페르시아만 지역 자체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외부세계가 점차 페르시아만지역에의 의존도를 높여감에 따라 페르시아 국가들은 일시적인 術數로써 석유의 공급량을 줄이거나 가격을 낮추는 등의 지금보다 훨씬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급속히 혹은 점진적으로 끝이 날 것입니다. 그들의 자존심과 더불어 국제사회에서의 그들의 위치도 새롭게 정립될 것입니다. 그들은 점점 거만한 자세로 변모할 것입니다. 한편 그로 인해 그들은 점차 他地域으로부터 많은 눈총을 받게될 것입니다.

7) 중동에서는 불화가 계속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 자체에 내재하는 갈등으로 인해 석유시장이 경색되며, 分裂과 紛爭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물론 산유국들이 보다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상태로 미루어 보거나, 특히 페르시아인과 아랍인들 사이의 역사적인 적대관계의 계속성을 念頭에 두고 본다면 친밀한 관계의 유지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맹관계가 존속한다면 그것은 강요된 억지동맹이 될 것입니다. 호메이니식의 강요된 동맹관계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런 類의 同盟關係가 형성될 수만 있다면, 외부 세계와 관련지워 볼 때 그 지역의 경제적, 군사적 힘은 倍加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經濟的 協力關係가 제한적으로나마 유지되는 대신 政治적인 結束은 점차 약화될 것이라는 예상이 훨씬 그 實現性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OPEC 카르텔은 현재같은 광범위한 구성체제에서 산유량을 비축할 의도를 지닌 페르시아만 沿岸國만으로 구성되는 “內部 카르텔” 형태로 대체될 것입니다. 이 “內部 카르텔”의 태도와 행동은 석유시장에서 실제로 주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것입니다.

8) 실패로 끝났던 소련의 아프칸 침공의 기억이 褪色되면서 이 지역 국가들은 어느 시점에 이르면 소련에 대한 관심이 되살아 날 것입니다. 따라서 비록 소련이 군사적인 면에 있어서 '70년대에 인식되었던 것보다 전반적으로 훨씬 약한 존재였음이 판명되더라도 지역 문제에 대한 간섭의 영향력은 줄어들기는 커녕 오히려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超強大國들의 영향력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不均衡이 야기됩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에 이지역 국가들은 결국, 멀리 떨어진 나라에 도움을 청하는 방식을 이용해 隣接國들과는 중립적인 관계를 유지한다는 古代中國의 金言을 활용할 지도 모릅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 방법을 통해 이 지역에서 평화적인 상태가 유지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생각컨데는, 에너지 分野에 영향을 미치는 힘들은 바로 이러한 것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힘들의 크기나 相互作用은 그 누구도 정확히는 가늠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대와 周邊狀況에 따라 여건이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확정적으로 미래의 모습을 점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한 불확실한 면들은 간단없이 변화하는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우리의 미래는 어떤 모습을 갖게 될까요?

세계는 앞으로도 에너지자원의 확보와 經濟成長을 위해 지금까지 그래왔던대로 꾸준히 페르시아만 지역에 대한 의존도를 높혀갈 것입니다. 따라서 중동지역은 에너지의 확보를 목표로 하는 世界列

強의 角逐場이 될 것이고, 이러한 緣由로 인해 그 와중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느 石油產業 分析家가 豫見하듯이, “만약 第三次大戰이 勃發”한다면 그 전장은 다름 아닌 “석유가 묻혀 있는 중동지역”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동지역 국가들은 석유를 등에 업고 恣意的으로 더욱 더 영향력을 행사하며, 더욱 自慢해지고 보다 개선된 군사력을 갖추게 되어, 아마도 終局엔 아주 심각한 분열상태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서방의 仲裁力이나 影響力은 오히려 감소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소련은 중재를 앞세우면서 그 영향력을 增強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 지역에서 소련이 優位를 占有하게 되는(뿐만 아니라 석유의 가치가 높아지게 되는) 잠재적 위협은 한동안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 결과 소련과의 관계속에서 페르시아 연안국들은, 恐怖와 喜悅이라는 양극단의 공간에서 매우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두가지점을 지적하면서 최종적 결론을 내릴까 합니다. 첫째, 일찍이 지정학을 연구했던 칼 하우스호퍼(Karl Haushofer)가 정리하였던 畧性 있는 표현 그대로 “그 뜨거운 땅을 다스리는 자, 그자가 바로 세상을 다스리리라”고 봅니다. 즉 그 힘이 어떤 類이든 중동지역에 위치한 지구의 原油倉庫를 통제해 갈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가 세상을 전반적으로 主導하리라 봅니다.

둘째, “The Meek Shall Inherit the Earth(溫柔한 자 그 자가 땅을 相續받으리니)”라는 성경말씀은 우리 모두 되새겨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故 폴 게티(J. Paul Getty)는 이말의 뜻을 수정하여, 온유한 자가 상속받는 것은 단순히 말 그대로의 “深土”가 아니라 “表土”를 의미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의 이런 판단은 호메이니아와 여러 사람들이 취한 행동들로써 입증된 바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중동지역에 속하는 의미심장한 이 심층토에 대한 권리가 아직은 온유한 자들에 의해서 행사되지 못하고 있는 實情이며,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은 여전히 稀薄할 것 같습니다.

譯者 : 홍 옥 희 박사(한전기술연구원)